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842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에 관한 올바른 설명.....	4
8618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위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계시들.....	5
8634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의 역사적인 증거.....	7
원죄가 창조 의 원인.....	9
6954 루시퍼와 하나님을 떠난 그의 타락.....	9
7770 창조한 이유.....	12
예수의 사명의 원인.....	14
6438 예수 탄생의 원인과 목적.....	14
6926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이유.....	15
8537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18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일.....	21
3443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일.....	21
5213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22
6999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24
8156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고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25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28
5215 사랑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28
7864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29
8222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30
2902 구속역사의 은혜, 강하게 된 의지.....	32
6176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33
766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33
구속 사역의 은혜.....	36
5844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36
584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	37
6485 예수의 존재를 믿으라.....	38
7084 인간 예수의 사명을 믿는 믿음.....	39
7250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	41
7352 나를 믿는 사람은.....	4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45
3787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구속역사.....	45

6098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46
8541 예수 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47
5925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48
7066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49
5577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제자.....	51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53
6333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53
8019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54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56
예수를 따르는 일.....	57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에 관한 올바른 설명.

B.D. No. 7842

1961년 3월 5일

하나님의 구세주를 믿는 데에 너희가 죽은 후에 빛의 나라에 들어 간다는 보장이 달려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빛의 나라가 닫혀 있게 만든 죄를 사해주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만약에 너희가 나 자신이 이 땅에 거할 때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진리를 체험해야만 한다. 너희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는지 예수 안에 실제로 누가 거했는지 누가 구속사역을 완성했는지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예수 안의 영원한 신성 자신이 십자가의 구속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나타낸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에 관해 순수한 진리가 전해지면, 너희들 안에 그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이 사랑이 너희의 믿음을 생명력이 있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사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너희에게 제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너희가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면, 너희는 진리를 영접할 자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선명하지 못한 관점을 주면, 너희는 의심하고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고 너희는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이 땅의 삶을 단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하내 전설로 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를 생명력 있게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축복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이제 죄짐을 가지고 너희의 죽음 후에 빛과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저세상으로 갈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을 수 없게 여기면, 그러면서 단지 너희 심장이 올바른 것을 원하고 진리를 원하면,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하나님께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진실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올바른 설명을 들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너희에게 너희가 이제 자원해 영접하게 될 지식이 전해질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지식이 진리임을 내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무작정 믿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서는 일에 진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얻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왜냐면 단지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 빛의 나라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가운데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에게 너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전적인 확신을 줄 것이다.

반면에 잘못 된 지식이나 부족한 지식은 너희에게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를 거부한다. 이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백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얻으려고 하라. 그리고 모든 심장으로 모든 혼으로 이런 믿음을 구하라.

너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죽음 이 후에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죄짐이 너희를 더 이상 짓 누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그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찬양하고 칭송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진리를 통해 믿음에 도달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전하는 그의 말을 통해 이 진리를 항상 또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러므로 그 안에 거했던, 너희와 너희의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찾게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위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계시들.

B.D. No. 8618

1963년 9월 16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항상 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로부터 사람들의 심장 안에 의심과 부인을 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시도에 패배당하지 않기 위해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큰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에서 전혀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단지 그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대적자의 계획이다. 이로써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약에 사람이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빼앗아 갈 수 있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는 그를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한 인

간으로 만드는 모든 그의 기적과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거짓말이거나 신화로 여기게 하는 이로써 모든 구속사역을 부인하고 효과가 없게 만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한다.

대적자는 자신의 거짓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자원하여 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을 찾는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관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전적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을 쉽게 버린다. 단지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만 새롭게 믿음을 강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으로 선명하게 주어지거나 또는 그는 내 말을 통해 정확히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구속사역에 관해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는 일이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게 하고 그의 가장 중요한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원죄에 대한 사죄를 구하게 하는 일이 바로 내가 이 땅에 내 말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삶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예수를 인정하고 긴밀하게 그에게 모든 죄 사함을 구하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는 진실로 헛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 혼의 원수로부터 전적으로 구속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원수는 너희 사람들을 대한 모든 권세를 잃는다. 그러나 그가 이를 모든 수단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전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자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고 자유의지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은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잘못 된 가르침을 생각하지도 않고 영접한다.

왜냐면 그들은 언젠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한 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항하는 역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타난다. 증거를 통해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영의 역사”를 통해 증명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명한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의 구속사역도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주고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런 내 설명은 인간 예수의 사명에 관해 선명한 윤곽을 주어서 진지하게 단지 진리 안에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비록 단지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지식을 주장한다. 대적자는 그들의 믿음을 더 이상 흔들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유일한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가능하게 된 것인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은 항상 단지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만을 전해주고 모든 영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내 대적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대적자에게 자원해 갈 수 있고 순수한 진리에 대해 자기 자신을 달을 수 있다.

대적자가 마지막에 가서는 나 자신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위에 서서 역사하는 한 권세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자의 역사가 항상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게 되고 이로써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종료시킨다. 그러면 그는 말씀과 성경 안에 기록 된 대로 다시 오랜 동안 묶임을 받는다.

아멘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의 역사적인 증거.

B.D. No. 8634

1963년 10월 3일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를 믿으면,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부분 단지 순전히 세상적인 죽음으로 여기고 이 죽음을 선동자에게 내린 사형선고가 집행 된 일로 여긴다. 사람들은 이 일을 인간 예수가 권세에 대해 지은 죄에 대한 법이 집행 된 한 사례로 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어떤 구원도 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그가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큰 죄의 속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이 단지 이런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구속사역의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인간들의 큰 원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예수의 구속사역을 설명해주는 영적인 연관 관계를 모르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를 항상 단지 사명을 가졌다고 꾸며댄 인간으로 볼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이런 사망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일이고 예수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의 큰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위해 예수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너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의 큰 의미와 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이에 관한 빛을 준다.

순수한 진리를 위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주는 내 특별한 역사만으로도 너희에게 이미 이에 대한 설명이 돼야만 한다. 왜냐면 십자가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과정과 연관 된 모든 상황인 예수의 이 땅의 삶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영의 힘과 사랑의 힘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단지 부인할 그의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단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해진 것으로 증거를 통해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신화에 속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의 죽음 후에 축복된 영역으로 가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깨달음을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줘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어떤 관계였는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 일을 쉽게 만들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에 합당하게 예수의 사명이 세상적인 이유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때문이라는 설명해 주면서 그의 이 땅의 삶을 설명해주는 일이고 예수의 구속사역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한다.

자신이 자원해 이런 지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 예수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예수를 고백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이런 지식을 그에게 증명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영을 통해 이런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그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증거가 없이도 확신을 가지고 이를 믿고 스스로 진리를 위해 일한다.

만약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십자가로 향한 길을 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삶은 헛되게 되고 비록 그가 저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단지 이 땅에서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위한 많은 은혜가 헛되게 된다. 만약에 혼이 이 땅에서처럼 완고하고 빛의 존재가 그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도 영접하지 않으면, 혼은 저세상에서 작은 빛에도 도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종말 전에 모든 일이 행해진다. 이를 통해 너희는 내가 계시를 주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에 관한 올바른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이 유지되도록 돌볼 것이고 항상 오류를 수정할 것이다. 왜냐면 진리가 단지 올바른 빛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염려 없이 진리를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루시퍼와 하나님을 떠난 그의 타락.

B.D. No. 6954

1957년 10월 25일

내 영원한 구원계획은 내 대적자가 나에게 저항하며 나를 떠나 타락해 깊은 곳으로 떨어진 후에 묶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대적자는 내 사랑으로 첫 번째로 나에게 의해 창조되었다.

나는 그를 내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 그러므로 그는 상상할 수 없게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넘치게 권세가 있고 지혜롭게 내 편에서 있었다. 그는 가장 축복된 피조물이었다. 왜냐면 최고의 축복을 주는 항상 또 다시 모든 존재들의 축복을 높여주기 원하는 내 사랑이 그에게 쉬지 않고 흘러 갔기 때문이다. 존재가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반면에 나는 존재를 볼 수 있게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 안에 내 원래의 성품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존재는 나를 알았다. 존재는 내가 그를 생성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존재는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힘을 나로부터 받았음을 알았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런 지식을 내 형상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그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말씀이 각인된 생각으로 그 안에서 들렸고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돌려줄 수 있고 이로써 우리 사이에 축복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끝이 없는 사랑이 응답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자신을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그릇을 구했다. 내 사랑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영원히 가장 축복된 상태를 갖게 해줄 대상을 구했다.

이 계획은 실제 나에게 의해 영원 전부터 세워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존재가 내 계획을 따를 지에 관한 질문은 언제든지 응답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다. 왜냐면 존재는 모든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로 창조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정할 수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 나에게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 생각이 말씀의 형태로 그 안에서 들렸을지라도 존재는 나와 같이 생각하고 원하게 강요받지 않았다.

그는 내 말을 모든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동인이 되어 말씀에 내가 부여하지 않는 의미를 둘 수 있었다. 그가 헌신하는 사랑으로 내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여는 동안에는 그의 생각과 원하는 것이 나와 전적으로 일치된 반면에 그가 그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대한 잘못된 된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존재도 바로 이런 능력을 의식했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형성시키기 위해 내 사랑을 능력을 거부하는 상태에 빠지는 시도를 했다.

내 사랑이 존재에게 제공한 제한이 없이 축복된 끝 없이 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런 시도가 이뤄졌다.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가 나와 가장 긴밀한 교제를 하는 동안에는 교제하기 위한 갈망과 내 형상의 증거로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향한 갈망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생명으로 창조할 정도로 창조적인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창조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쉬지 않고 제공했다. 그러나 존재가 그에게 흘러가는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하려는 첫 번째 시도를 하였을 때 이제 잘못된 생각하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능력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존재도 축복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순수한 사랑으로 다시 나에게 돌이켜 내가 존재를 옛날처럼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하는 일이 다시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횟수가 증가되었다. (1957년 10월 25일)

왜냐면 존재가 항상 또 다시 자신 안에서 내가 없이 같은 일을 행하고 창조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았기 때문이다. 존재는 자신이 창조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존재가 나로부터 격리되어 이로서 나를 거부하고 사랑의 힘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시험해보았다.

그렇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남아 있는 능력을 자신의 뜻을 따라 존재를 창조하는데 사용했다. 이로서 창조된 존재는 이미 어느 정도 그의 의지를 자신 안에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항상 단지 짧은 기간의 시도였다. 존재는 내 사랑의 힘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항상 대적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사랑의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는 빛의 전달자인 존재가 나를 시기했다. 그는 항상 계속하여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 내 사랑의 힘이 없어지게 만들고 이 존재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이로서 나를 연약하게 만들 생각을 했다.

반면에 그는 나를 제외시킨 내 능력의 증거로 인해 기뻐하고 권세와 능력에서 나를 능가하기 원했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고 유일한 잘못된 생각이 잘못 방향을 잡은 순간적인 생각이 항상 새롭게 잘못된 된 상상을 하는 공간을 부여했다.

빛의 전달자는 자신에 대한 갈등에 빠졌다. 그가 이에 관해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면, 실제 나와 대화하는 일이 그에게 가능했고 그는 이런 갈등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내 사랑의 힘을 계속하여 받았다.

바로 이런 지속적인 사랑의 힘의 제공이 그로 하여금 이런 능력의 제공이 실제로 그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았던 분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킬지라도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된 생각에 도달하게 했다.

그러나 모든 나를 대항하는 생각이 능력의 제공을 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가 나를 전적으로 떠나기까지 이로서 그가 창조할 수 있게 해준 능력의 제공이 중단되기까지 그를 항상 더욱 나에게 대항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끝이 없는 긴 기간 동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내 뜻 가운데 내 능력을 사용한 가운데 창조되었다.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그들의 창조자가 창조할 순간에 나에게 대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그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은 모든 존재들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들이 창조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랑의 힘이 같은 크기로 모든 이런 존재들을 그들을 잉태한 자가 그에게 향하게 재촉하는 것과 같이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잘못 된 의지를 존재 안에 넣어 주었을지라도 그들 안에 내 사랑의 힘이 그들 안에 비추어 준 깨달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내 대적자가 존재들을 생성하였을 때 존재들은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도 그가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나타내 보였을 때 어떤 창조 된 존재도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쉽게 믿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이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자가 그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원했다.

그는 나를 내적으로 대적하는 순간에 창조하는 역사가 이뤄진 존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나는 이런 모든 혼들에게 내 빛을 비추어 주었다. 혼들은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혼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혼들은 그의 소개를 믿을 필요가 없고 그를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혼들의 의지는 자유 했다. 혼들은 나로부터 그리고 내 대적자로부터 강요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스스로 내 대적자를 위한 결정을 하면서 죄를 지었다. 그러나 혼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혼들은 나를 깨달았다.

그러나 혼들은 자유의지로 혼들이 볼 수 있는 자를 따랐다. 이는 동시에 더 나은 지식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존재를 전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을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하고 모든 능력을 빼앗기게 만든 이 일은 아주 큰 죄이다.

왜냐면 혼들이 내 대적자를 깊은 곳까지 따라 갔을 때 혼들이 내 사랑의 힘을 의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때 모든 존재들이 어떤 온전한 상태로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 모두 안에 얼마나 밝은 빛이 비쳤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빛을 포기하고 그들을 어둠으로 인도한 자를 따른 죄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대적자 의지를 통해 이 전에 모든 깨달음을 빼앗겼다면, 이런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내 사랑의 힘의 작품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빛의 존재로써 그들이 결정하게 요구받았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반대로 향하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합당하게 나와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었다. 나에게 귀환하는 일은 영원한 기간이 필요하고 한때 타락한 모든 존재가 대신 속죄를 행한 인간 예수의 속죄를 인정하고 속죄 받기 원하면, 비로소 나에게 귀환이 이뤄질 수 있다.

아멘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한때 영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결과이다. 너희의 창조의 왕관으로써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버렸던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도달해야 함을 너희 스스로 세상적인 창조를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미 자주 설명해 주었다. 너희 자신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모든 세상적인 창조물들을 창조하게 했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창조의 작품을 거치는 과정이다. 이런 이 땅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원래 신적인 존재이고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일이 너희의 신적인 성품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다시 나에게 향하는 이로써 나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면 세상의 창조물들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고 그들은 영원한 내 계획대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주변의 모든 창조물들을 나를 대적한 너희의 죄의 결과로 보아야 하고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너희는 창조물을 너희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으로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는 내 능가할 수 없는 지혜가 창조를 가장 안전하게 너희를 다시 얻기 위한 수단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스스로 너희가 지나왔던 창조물을 거친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내 끝없는 사랑이 타락한 자들에게 베푼 은혜에 아주 넘치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창조물은 더 이상 묶임이 아니게 되고 묶임일지라도 아주 큰 내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창조된 존재들에게 최종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창조하게 만든 것처럼 사랑이 너희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나로부터 너희에게 흘러가는 능력을 내 뜻대로 활용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성장 정도가 필요하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성장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너희 혼은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빛과 능력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혼은 제한이 없이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혼은 내 곁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고 축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작품은 실제 한편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강요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로운 영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속되지 못한 영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이다.

창조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심판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창조의 작품은 한편으로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유를 준다. 왜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정해진 일인 섬기는 일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섬기는 일을 통해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 있는 구속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이를 안다.

이 존재들은 자신의 사랑으로 내 뜻에 따라 새로운 작품을 생성되게 하기 위해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 왜냐면 이 존재들은 영원한 내 구원계획을 깨닫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창조물을 내 대적자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창조물은 자신 안에 구속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적자 자신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묶임을 받은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반면에 빛의 세계에서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하고 그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항상 또 다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대적자의 영향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를 단지 올바르게 향하게 하면 된다. 그는 단지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하면 된다.

나는 그를 영접하고 진실로 그가 내 대적자의 손에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의 시험은 그 자신이 치러야만 한다. 그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 대적자로부터 그의 의지에 방향을 정하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때 자신을 생성되어 나오게 한 빛을 갈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적인 성품을 증명해야만 한다.

아멘

예수 탄생의 원인과 목적.

B.D. No. 6438

1955년 12월 29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의 계명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너희가 성장하기 원하고 혼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기 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으로 임해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길은 존재가 한때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것처럼 되도록 존재를 다시 형성하는 길이다.

인간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사랑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을 증명했다. 인간 예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로써 빛과 힘을 충만하게 얻게 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인도한 것은 단지 사랑이었고 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그에게 빛이 충만한 지식과 가장 깊은 지혜를 준 것은 단지 사랑이었다. 이런 하나님과 그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넘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행하도록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주었다. 즉 그들이 한때 그들의 하나님의 떠난 일로 인해 영의 세계에서 잃었던 이전의 온전함을 다시 얻기 위해 그들의 삶을 자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일로 큰 짐을 지고 있었고 이런 죄짐이 인류를 짓누르고 있었고 인간 예수는 인류를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죄짐이 또한 원하는 사람들을 항상 또 다시 끌어 내렸고 또한 주 예수를 대적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다른 주인에게 성장을 막을 권리를 부여한 사람들을 끌어 내렸다. 그러므로 다른 주인은 타락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단지 가능한 곳에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의 책임이 있는 자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가르침대로 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를 먼저 꺾어야만 했고 사람들은 먼저 그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했고 사람들이 위로 향하는 길을 가능하게 해주어야만 했고 한 사람이 그들을 도와야만 했다. 왜냐면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 혼자서는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간수장이 사람들을 묶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줘야만 했다. 한때 하나님을 대적한 죄짐을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 왜냐면 죄짐이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을 영원히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죄를 없애고 속죄를 행하고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았다.

예수는 그의 형제 루시퍼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생성된 존재였다. 하나님과 함께 머문 천사의 영으로서 그는 타락한 존재의 큰 위험과 그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이런 위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주 큰 사랑은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 즉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걸형체로서 영원한 신성을 섬기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 영원한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이 행한 구속역사를 통해 이런 죄짐을 해결해주기를 원했다.

구속사역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가 이 땅에 설교한 가르침대로 사는 일을 통해 자유롭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면 그들이 아직 묶여 있었고 그들의 의지가 죄짐으로 인해 너무 약해져 그들이 대적자의 영향으로 항상 또 다시 타락했기 때문이다. 혼들은 대적자에게 속했고 대적자는 절대로 혼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인간 예수 안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짐을 해결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깨닫고 예수의 긍휼의 역사를 자신을 위해 활용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돌아 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일을 믿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삶과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자신을 그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빛과 능력으로 충만한 존재로 자신을 다시 형성하면,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이유.

B.D. No. 6926

1957년 9월 23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이 계명을 성취하면,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한때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진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이제 단지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의 모든 역사와 사역은 단지 이 목표를 향해 있다. 왜냐면 질서의 상태는 신적인 것이고 모든 신적인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은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온전한 성품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절대로 공의 밖에서 일어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지 그로부터 온 신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그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왜냐면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의 성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그가 자유의지로 온전함을 버렸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축복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랑에 제한을 가는 것이 바로 죄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제한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에게 온전함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을 선물하면, 하나님의 최고로 온전한 성품이 의심스럽게 되었을 것이다.

죄가 먼저 해결돼야만 한다. 존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원래 초기에 거했던 상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야만 한다. 왜냐면 공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질서의 상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존재 안으로 흘러가 이제 존재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부한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의 상태에 들어 가는 일은 측량할 수 없게 어렵다. 왜냐면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생긴 무능력으로 인해 그에게 다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존재 자신에게 달려 있으면, 존재는 영원히 자유의지로 추구했던 처량한 상태에 머물러야만 하게 되었다. 존재가 도움이 없이 혼자 하나님의 질서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죄가 크고 이 죄로 인해 끝 없이 깊은 곳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제 아주 커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타락한 존재에게 도움을 주기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를 단순하게 없앨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속죄를 요구해야만 한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죄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존재 스스로는 그들의 연약함과 어둠 가운데 이 죄 값을 절대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빛의 존재가 대신해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제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시 부어 질 수 있게 했다. 빛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희생제사를 그러나 이 큰 죄에 합당한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구속을 줘야 할 긍휼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하기 원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빛을 벗고 인간적인 형체에 들어가기 원했다. 그는 이제 자신도 연약한 존재로써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려는 목적으로 끔찍하게 어려운 이 땅의 과정을 갔다.

그는 단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 안에 사랑이 최고로 확산시키기를 원했고 사람 앞에게 사랑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사랑의 삶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주었고 그에게 영원한 사랑이 전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육체를 소유했고 그러므로 그가 이제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영접했다. 그의 사랑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은 예수에 의해 죄가 해결되었다.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 예수 안을 전적으로 모두 채우고 있었고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고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일을 모든 한때 타락한 존재들이 추구해야만 하고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하나님처럼 되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비추임 받음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타락한 존재들은 인간의 단계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연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운다. (1957년 9월 23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임 받기까지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고 이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 그들에게 이런 사랑의 빛을 준다.

그들은 왜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단지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고 모두가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행하던, 사랑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흘러준 능력을 이제 그의 의지이기도 한 하나님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을 의미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근본 법칙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동안에는 그거 아직 원죄의 짐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그는 아직 연약하고 어두운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동안에 그는 이웃사랑을 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자기 자신을 위해 완성이 되었음을 아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만들 수 있다. 그는 비록 그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이미 축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연결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이 이를 통해 사람의 혼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때문이다. 계속 진행되는 일은 단지 사람이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영향은 사람이 사랑을 행하게 자극하는 영향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써 이 땅에서 행한 일과 같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항상 단지 사랑을 알려주는 일이다.

왜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선 진지하게 하나님과 연합을 구하게 만들 깨달음의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이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단지 사랑을 행하면, 이런 깨달음의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의 불씨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지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죄를 통해 그에게 부담을 주는 연약함을 사랑을 행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로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해지면, 그들은 이 지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사랑을 통해 연결을 이룬 분과 의식적인 연결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떠나면, 그들에게 번개같이 빠르게 깨달음이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면 혼이 사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재촉을 받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대적자에게 전적으로 맡겨 두지 않기 때문이고 선한 영의 편에서 사람의 의지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의 연약함이 종종 아주 커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그에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빛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직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게 자극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다.

그러한 곳에서도 내적인 깨우침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 제공이 되든지 간에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공화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면, 그들은 그들이 한때 지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묶고 있는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 자신이 사랑을 행하고 이로써 자유의지로 영원한 사랑에게 다시 속하게 된 존재들의 사슬을 풀어 주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B.D. No. 8537

1963년 6월 22일

순 수한 혼을 필요로 하는 사명 때문에 예수의 혼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기 위해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임한 일에 관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혼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단지 순수하고 죄가 없는 혼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어떤 말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 창조물을 거치는 긴 성장 과정을 가야만 하고 부족한 상태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어야 하는 인간의 혼과는 반대로 예수의 혼은 타락하지 않은 혼이었다.

이 때문에 예수의 혼이 외부로부터 침범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과 말할 수 없이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의 육체는 성숙하지 못한 물질이고 대적자의 영향으로 구속받지 못한 입자들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았고 육체는 모든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성숙하지 못한 육체의 입자가 붙어 있는 육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예수에게 요구했다.

예수의 혼은 전적으로 순수하게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그에게 달라붙었고 혼은 이들을 떨쳐 버려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했다. 외부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 예수에게 침범했고 환경이 예수의 혼에 역사했고 이로써 예수의 혼은 모든 내적인 싸움을 견뎌내야만 했다. 이런 내적인 싸움은 타락한 혼들도 견뎌내야만 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혼이 온전했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은 쉬웠을 것으로 여기는 관점은 잘못 된 관점이고 정반대였다. 예수의 혼은 순수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환경 아래서 더 심한 고통을 당했고 그의 혼은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침범해오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를 통해 이 웃이 그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빛의 혼이 거해야만 했던 어두움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이런 최악 된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다. 모든 루시퍼적인 것들이 실제로 예수의 혼을 공격했다. 그러나 예수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일도 이를 수 없었다. 예수는 모든 시험을 견디어 냈고 그는 자신의 대적자

에 대항해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항해 싸웠다.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사랑을 통해 인간 예수 자신의 육체의 악한 영들의 입자를 영화 시키는 일을 이뤘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그를 소유하게 되었다. 영원한 사랑은 죄악 된 혼에게는 그가 소멸되지 않게 하면서 절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전하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임했다" 이고 "그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왔다" 가 아니다. 비록 루시퍼적인 존재들이 예수의 혼을 아주 크게 둘러쌌지만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외부로부터 그의 혼에게 다가온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적했고 육체를 통해 그를 공격하거나 사탄의 보냄 받은 자로써 그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구속되지 못한 존재가 공격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의도한대로 자신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의 순수한 혼은 저항을 했고 사탄적인 것을 물리쳤고 그는 자신의 육체에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성숙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였을 때 육체가 영화되어 혼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혼이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선 것처럼 혼은 루시퍼의 세력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혼은 패배당하지 않고 루시퍼의 세력에게 저항했다. 왜냐면 혼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 사랑이 혼에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높은 곳으로부터 사랑을 가져왔고 사랑은 혼을 내어주지 않았고 혼은 영원한 사랑과 항상 더욱 하나가 되어 갔다. 이로써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하나가 되는 일이 이뤄졌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큰 사랑과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통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도 싸워야만 했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고 이 불씨에 항상 양분을 제공하여 밝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예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반면에 예수는 항상 단지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했고 이 사랑이 바로 자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단지 죄가 없는 존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는 절대로 그의 사랑을 거절했던 타락해 창조물을 거치는 성장 과정을 갔던 혼 안에 거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원죄가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혼이 타락한 혼이었다면, 인간 예수의 혼은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구속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는 가장 큰 비밀이고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한 순수한 존재가 인간의 원죄를 위해 속죄를 완성해야만 했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고 스스로는 자신의 간수인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능력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

문에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빛의 혼이 대적자와 대항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예수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왜냐면 그의 능력이 사랑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에 관해 설명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잘못 된 관점은 잘못 된 결과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예수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에 대항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타락한 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아직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었고 타락한 혼이 대적자에 대항해 이긴 적이 한번도 없었고 구속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싸움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못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절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사랑의 불씨를 받았을지라도 이 불씨가 절대로 화염으로 불타오를 수 없었을 것이고 대적자가 타오르게 하는 일을 막았을 것이고 타락한 존재 자신이 너무 연약했다.

너희 사람들이 예수의 혼에 루시퍼적인 부분이 있고 예수의 혼이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었다는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너희는 잘못 된 생각으로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단지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에 관한 순수한 진리가 너희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진리가 너희 사람들에게 올바른 빛을 주고 진리는 항상 단지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일.

B.D. No. 3443

1945년 2월 22일

보 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인간화 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해 좁은 제한된 개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우주를, 모든 영의 나라를 자신의 영으로 채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존재를 비슷하게라도 상상하기 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화 하는 일을 완전히 삼가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의 몸을 그의 신성으로 채우고 변형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신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 형체 안에서 자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을 실제 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혼이 몸을 벗어나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혼이 영원한 신성의 특성을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육신을 입는 일이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성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깨어나게 하거나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선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 일이 그들에게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기 위해 이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신성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신성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성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그 안에 자신이 거한 형체였다.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한 성숙한 정도에 도달한 존재들은 영적으로 같은 형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신성은 어디에나 거한다. 그러므로 제한된 형체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고, 또한 인간화 된 신성으로 말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단지 이 땅의 삶을 위해, 인간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주에서 고립된 개별적인 존재로써 한 인격으로 인정받기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격은 항상 인간적인 존재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 개념을 영원한 신성에게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영은, 이 영이 온전한 영이라면, 절대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어떤 형체 안에 묶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최고로 높은 온전함은 모든 개념을 뛰어 넘어 자유롭고 모든 무한함속으로 발산하고 모든 곳에 존재한다. 왜냐면 그들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또한 형체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단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영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동안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그가 존재하는 하나님을, 그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신성을 인격으로 생각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

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순수한 욕망을 충족시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지,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발산이 인간 예수를 채웠다. 결과적으로 단지 겉형체인 육체적 형체가 인간이었지만 혼과 영은 신적인 것이었고, 혼과 영은 그들이 출처인 하나님과 전적으로 완전하게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을 제한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가장 완전한 존재가 한 형체 안에서 제한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영원한 신성은 존재적인 것이다. 즉 영적인 힘과 의지와 생각할 능력을 가진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긴밀한 접촉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와 생각은 겉형체에 묶여 있지 않고 인간의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겉형체를 벗게 되면, 본질적인 영적인 존재는 계속 생각하고 원할 수 있다. 단지 그런 능력이 성숙한 상태에 따라 약하거나 강해질 수 있는 반면에 가장 온전한 존재로써 영원한 신성은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를 가장 깊은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실행에 옮긴다.

인간의 육체의 겉형체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혼의 불멸성을 믿는 사람은 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겉형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이 같이 성숙한 영과 연합할지라도 혼의 의식으로는 개별적인 존재로 남는다. 이는 마치 빛의 존재가 영원한 신성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지만, 영원한 신성이 빛의 존재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게 축복된 가장 높은 빛의 존재들에게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존재로 계속하여 남는 것과 같다. 왜냐면 빛의 존재들이 항상 끊임없이 영원한 아버지로서 그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B.D. No. 5213

1951년 9월 16일

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내 나라로 들어갔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했고, 다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일은 너희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각 사람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수께끼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의 몸과 그의 생각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의 몸과 그의 생각 모두가 아직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동안에는 사람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진리에 전적으로 합당하게 주어진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의 비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이로써 그 안의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성장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역사했고 인간으로 고통을 받았다.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전 인류에게 유익이 되려면 인간이 구속사역을 완성해야만 했다. 왜냐면 내 안의 거룩한 하나님이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은 말로 말할 수 없게 컸고 커야만 했다. 이로써 이런 고통이 인류에게 그들의 큰 죄짐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구속의 사역이 너무 낮게 평가받지 않게 한다.

사람은 내 십자가의 길의 고통과 고난을 측량할 수 없다. 그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는 감각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면 고통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서 그런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의 작은 부분으로도 사람의 삶을 끝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몸이 영화되어 엄청나게 강한 의지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엄청난 죄짐으로부터 인류의 해방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행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갔고,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너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받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것도 아끼지 않았고, 내 고통과 고난을 가장 꼼꼼하게 묘사하는 일로도 내 고통과 고난을 너희에게 비슷하게라도 보여줄 수 있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나로부터 인간 예수로부터 거룩한 신성이 벗어나, 인간 예수가 홀로 역사를 완성하게 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자신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 밖에 자신을 두고 강하게 머물기 위해 먼저 싸워야만 했던 꼼꼼한 싸움이 일어났다.

예수는 큰 영적인 위험에 처한 인간을 위한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이런 아주 큰 사랑때문에 내가 희생제사를 받아 들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하게 순수하고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존재가 고통당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희생제사를 받아들였고, 인간 예수를 그의 원수요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넘겼다. 왜냐면 그가 성취한 역사는 모든 영원을 위해 유효했고, 그의 역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축복되지 못한 모든 영적인 존재의 구속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혼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영의 존재로서 모든 속죄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모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이 땅의 길을 가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만 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빛의 존재가 모든 약점과 실수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의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사용한 의지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미 영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이런 나와 영의 연합이 인간이 힘을 넘치게 얻게 해주어, 이로써 영원한 아버지의 영은 인간이 나와 연합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그가 가장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가 이 땅의 모든 것과 영의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있고, 그가 자신과 그의 육체와 그의 혼을 사랑을 통해 이 땅에서 전적으로 영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단지 한 사람이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제시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목표로 이끄는 길을 즉 아버지의 집의 나에게 이끄는 동일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움이 없이는 너무 약했다. 왜냐면 그들에게 바로 사랑을 행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

이다. 예수는 이전의 죄의 결과로 인한 의지의 연약함을 알았고, 그들이 더 강한 의지를 갖도록 그들을 돕기 원했다. 내가 실제 인간 예수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모든 풍성함으로 그의 심장 안으로 이끌었다. 왜냐면 내 원초적 성품은 사랑이고 그의 큰 사랑이 나와 의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인간 예수는 실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의 사랑으로 가장 높은 것을 얻었고, 그는 높은 빛의 존재로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으로서 빛의 나라로 돌아갔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통해 나와 완전히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이 나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볼 수 있게 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각자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그의 죽음과 말할 수 없는 그의 고통을 통해 너희를 위해 죄짐을 속죄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B.D. No. 6999

1957년 12월 22일

구원이 위로부터 왔다. 왜냐면 이 땅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거했기 때문이다. 이 땅과 빛의 나라가 서로 연결할 수 없게 분리되었고 그러므로 위로부터 이 땅으로 다리를 건설해야만 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야 하고 건널 수 있었다. 왜냐면 한 분이 그들보다 먼저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을 아버지께 인도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자녀들을 끌어올릴 수 없고 먼저 죄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 죄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를 크게 벌어지게 했다.

이런 죄에 대한 속죄가 없이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죄가 있는 피조물들은 스스로 속죄를 행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구세주가 위로부터 내려와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간격을 메울 수 없었다. 영원한 사랑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었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인간의 겉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서 일회적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해결했고 큰 죄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이런 인간 예수가 사랑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이런 인간 예수는 인류의 엄청난 죄짐을 깨달았다. 왜냐면 그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고 원래 초기에 창조된 천사의 영인 한 빛의 혼이 인간으로서 타락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만족시키기 위해 자원하여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빛의 혼은 아기 예수의 몸 안에서 살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이 땅의 길을 갔다. 이 과제는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사랑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도달하는 길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통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의 삶이 주는 영향을 보여주었

다. 그는 자신의 이 땅의 과정을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일로 즉 존재들을 불행하게 만든 큰 죄를 해결하는 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런 속죄하는 일을 인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사랑이 행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했고 영원한 사랑이 그를 전적으로 모두 충만하게 채웠고 예수는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구속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런 한 사람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구속 역사를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랑이 인류의 죄를 속죄했다. 그의 원래의 성분이 사랑인 하나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이로써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랑을 통해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다.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단지 이런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는 또한 구원의 시간 후부터 아버지께 도달하는 다리가 생겼고 아버지께 도달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모든 피조물들이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다리를 세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 자신이 타락한 존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냈고 사랑 자신이 이 길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구원이 위로부터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은 깊은 어둠 속에 고립되었고 더 이상 빛의 나라와 접촉할 수 없었다. 영원한 빛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 어둠을 뚫었다. 빛과 축복의 권세자가 어둠의 권세자에 대항해 싸웠고 그를 패배시켰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빛을 청산하고 사슬에 가두고 있는 자로부터 혼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이런 구속사역을 행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지만 이런 아주 큰 죄를 단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희생과 인간이 겪는 가장 쓰라린 죽음으로 보상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이런 고난을 받기를 원했고 이로써 아버지가 갈망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했다. 이런 구속 역사는 일회적인 역사이다. 인간 예수가 소유한 가장 깊은 사랑과 최고의 지혜가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이웃을 위해 고통받고 죽기 위해 모든 의지의 힘을 쏟아 부었다.

이로써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날 밤에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고 공황의 역사를 완성했고 원죄가 사함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위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열렸고, 빛과 축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고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8156

1962년 4월 20일

가장 끔찍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는 인간으로써 이 땅의 내 삶을 결정했다. 내가 사람들의 큰 죄를 사해주기 위해 피를 흘릴 때 사람들에게는 단지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스스로 짊어졌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다. 왜냐면 이런 은혜와 공황의 역사를 위해 사랑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는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인 사랑에 관한 것일 때만 단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다. 그의 아주 큰 사랑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자신 스스로를 제사로 드리게 했다. 왜냐면 그는 이웃들이 불행한 상태를 깨달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채워준 사랑이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내 원래의 요소로 그 안에 거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완성했다. 그러나 "인간"이 강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었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나 자신이 인간적인 걸형체를 선택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내 긍휼의 사역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때 인정하는데 실패한 나를 다시 인정하려고 하면, 그를 인정해야만 함을 믿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은 아주 큰 문제여서 짧은 말로 설명해줄 수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시도한다. 십자가의 제사를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완성했다.

왜냐면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한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인간 예수가 짊어 졌다. 그의 인간의 걸형체가 그의 몸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고 큰 죄짐을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그 안에서 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랑이 그를 전적으로 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안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걸형체가 되었다.

신성의 원래 요소가 사랑인 신성이 그를 전적으로 비추어 주어서 그가 신성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나와 예수는 똑 같다. 예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반면에 이전에는 어떤 내 피조물들도 나를 볼 수 없었다. 왜냐면 피조물들이 영원한 사랑의 원래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인간 예수가 견딘 고난은 상상할 수 없다. 이를 통해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존재들의 큰 원죄의 짐을 속죄하여 모든 존재들이 빛과 축복의 나라에 있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주게 되었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은혜와 긍휼의 역사의 모든 깊은 의미를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실행한 이 역사가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를 둔 깊은 영적인 동기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너희는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닫고 인정해야만 함을 믿을 수 있다. 항상 또 다시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항상 또 다시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내 영을 통해 이에 관해 깨달음을 줄 것이다. 왜냐면 학교 공부 식으로 전해진 지식은 절대로 영접되지 못하고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스스로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B.D. No. 5215

1951년 9월 21일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인간 예수 안에서 무한하게 타올라 그의 혼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힘으로까지 커졌다. 이런 상태는 그를 인간의 세상적인 영역을 넘어선 상태였고, 그는 나와 하나가 된 상태였다. 그런 강한 사랑이 단지 십자가의 희생을 드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그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죽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영을 포기하기까지 사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희생을 했고,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이 일은 또한 비밀이고, 이 땅이 존재하고 너희 인간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구속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너희 인간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이 영원한 신성의 원래의 입자이고 그러므로 사랑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역사를 성취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겉보기에 모순이 되지만, 이는 진리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랑이 거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이미 신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이미 죽게 되지 않은 그가 당한 아주 큰 고난이 이를 증명했다. 그의 인류를 향한 사랑은 아주 깊어 인류를 돕기 위해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는 초인간적 고통으로 인간의 몸의 생명력을 빼앗기에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힘이 그의 원수들이 그의 육체를 일으켜 세워 십자가에 못박을 때까지, 그의 고통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몸이 살아있게 했다. 그는 내 대적자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일을 허용했고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죽음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자임을 보여주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모든 인류가 그의 죽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인 마지막 때까지 나와 연결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워하는 혼은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 밖에서 나를 찾았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음 말을 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당신은 저를 버렸나이까?" 권세가 총명한 하나님이 물러났을 뿐 사랑이 그 안에 있었고, 머물렀다. 사랑은 실제 자체가 힘이였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당할 수 있기 위해 사용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으로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의식적으로 죽었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공허히 여기기를 나에게

게 구했고,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음 말을 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손에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는 자신과 나 사이의 연결을 유지했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통해 자신과 하나가 된 존재로 부터 자신을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였고, 그가 나였다.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분리가 없게 되었다. 왜냐면 나 자신의 원래의 입자인 사랑이 또한 그를 전적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 예수가 그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힘으로서 역사하지 않고 머물렀지만, 내가 그와 함께 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했다.

그와 나, 우리는 하나이고 그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 왜냐면 아버지는 사랑이고, 사랑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죽을 수 없고, 삼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사랑이 또한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고, 예수의 고통을 통해 완전히 영화가 된 육체가 살아나게 했다. 이로써 사랑이 죽음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구세주는 사탄이 이겼고, 빛이 어두움을 물리쳤고, 영원한 빛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B.D. No. 7864

1961년 4월 3일

너희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밤에서 생명에 도달했다. 내가 너희를 공허히 여기고 빛의 나라의 문을 너희에게 다시 열어 주지 않았다면, 어두움이 너희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고 너희는 어두운 운명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빛의 나라의 문을 너희에게 다시 열어 주기 위해 나 자신이 너희 죄를 해결했고 너희를 위해 내 피를 흘렸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죄짐을 해결할 때 까지 영원으로부터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던 대적자에게 너희 혼을 위한 구매가격을 지불했다.

대적자는 이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야만 하고 너희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를 위해 구원 역사를 완성한 나에게 도피하면, 그는 너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짐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러므로 속죄의 역사도 특별해야만 한다. 나에 의해 생성된 원래의 영인 빛의 혼이 자신의 타락한 형제인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가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너희에게 빛의 나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 주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 그렇지 않으면 빛의 나라로 가는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었을 것이다.

빛의 혼이 이 땅으로 임했고 인간의 겉형체를 입었고 인간으로 사랑의 삶을 살았다. 이로써 그는 자신을 형성해서 나 자신이 이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나는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그 안에서 구속 역사를 완성했다. 인간 예수는 스스로 엄청난 고난을 짊어졌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의 가장 쓰라린 죽음으로 끝난 자신의 고난의 길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했다. 왜냐면 그는 아직 죄짐을 지고 있는 어떤 존재도 내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왜냐면 사랑이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 안에 사랑이 거했고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는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신비로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내가 육신

을 입은 사랑의 역사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서 나 자신은 고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자원하여 고통받기 원하는 인간이 속죄를 행해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이웃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도록 어떤 사람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 사랑이 자유의지로 그가 자신의 모든 혼의 열성을 다해 사랑한 아버지께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게 했다.

그러므로 그는 나를 전적으로 그의 심장 안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생각과 모든 호흡이 그를 생성되게 한 나에게 향했다.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 예수를 전적으로 모두 나 자신으로 충만하게 했고 그러므로 내가 희생 제사를 드렸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 역사를 이뤘다. 인간 예수는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견뎠고 나는 이런 사랑의 행위로 만족했고 큰 죄를 해결했다.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고 어두움의 나라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다리가 건설 되었다. 깊은 곳에서 높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고 내가 첫 번째로 나를 떠나 타락한 자가 세상으로 가져온 죽음을 이겼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죽음을 이겼다. 나는 나를 단지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구속 역사의 은혜를 활용하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기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매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이로써 너희가 단지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를 너희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너희에게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로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영광으로 빛의 나라가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진실로 죽음의 밤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왔고 그러면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이런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원래 초기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너희를 사랑할 내 손에서 이런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B.D. No. 8222

1962년 7월 24일

내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드린 십자가의 제물로 내가 너희를 위한 구속 역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나와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되었을 것이다.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었고 너희 자신은 이 절벽 사이를 결코 넘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내 나라가 너희에게 영원히 닫히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은 너희의 큰 죄가 속죄되기 전에는 내 공의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속죄는 인간 예수에 의해 이뤄졌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왜냐면 그의 순수한 인간의 곁형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고 내가 죄가 있는 사람 안으로 육신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법과 피할 수 없는 내 공의에 따라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빛의 혼이 자유의지로 이 땅으로 임해야만 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실제 사랑이지만 내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기 위해 공의가 없이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공의를 만족시켰다. 인간 예수는 타락한 피조물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고 그들에게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예수의 빛의 혼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다. 왜냐면 사랑이 구속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다. 사랑이 인간 예수를 전적으로 총만하게 채웠고 가장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힘을 그에게 주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힘을 그에게 주었고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게 했다.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런 희생을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무한 가운데 가장 큰 영인 내가 인간 예수의 겉형체를 입고 나를 나타냈다. 나는 인간 예수를 내 원래의 본질인 사랑으로 총만하게 채웠고 그는 내 사랑으로 총만하게 되었다. 그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존재들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갔을 때 단지 인간의 겉형체가 내 사랑의 힘이 역사하는 일이 줄었다.

내가 그 안에 있었고 그는 내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유의지로 자신의 혼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을 성취했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는 나였고 내가 그였다. 나는 인간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었다. 왜냐면 그는 전적으로 사랑으로 총만했고 사랑은 내 원래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큰 죄가 속죄되었고 너희 사람들이 이제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갑자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올 자세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전에 지은 죄를 의식해야만 하고 예수 안의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짐을 가진 가운데 머물게 되고 너희는 빛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인간 예수의 영적인 사명과 그 이유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르침을 믿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았다면, 너희가 스스로 구속 역사에 대한 모든 깨달음 얻는 일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결과는 항상 내 영이 역사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이런 일이 너희가 너희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너희 자신이 준비돼야만 하고 예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의 무리 안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구속 사역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는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 건설한 다리에 들어선 것이고 빛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은 것이다. 예수가 구속 사역을 통해 자신의 빛과 축복의 나라의 문을 너희에게 열어주었다. 예수 안에 나 자신이 거했고 내가 또한 너희를 위해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 이로써 너희가 언젠가 나를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했다.

구속역사의 은혜. 강하게 된 의지.

B.D. No. 2902

1943년 9월 29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통해 의지를 행사할 힘이 그에게 공급되는 지에 관계없이 인간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류 전체를 위해 겪은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랑의 역사를 통해 풍성한 권세와 힘을 가졌던 인간 예수가 자유 의지로 사람들을 그들의 죄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 자신이 속하게 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기만 하면 되고, 목표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그가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기 만하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에게 힘이 공급될 것이고, 그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이 대적자가 무너트릴 수 없는 대적자를 막는 장벽을 구축하고,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을 수 없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게 된다. 이런 믿음이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된다면, 그는 절대로 어두움의 세력에게 당할 수 없게 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원수의 권세를 꺾었고 사람들에게 더 강한 의지를 구매해주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속 사역의 은혜와 높은 곳을 향하려는 더욱 증가된 의지를 자신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지가 이제 그들이 이제 땅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받게 한다.

단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께 반발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의 의지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가 아직 그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의지가 실행에 옮겨지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저항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 왜냐면 인간이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의 묶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역사를 통해 연약한 사람을 해방시키지 않았다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대적자의 권세에 완전히 굴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역사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권리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요청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유일하게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면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은 손으로 그를 인도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문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그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이로써 자신이 없이는 어떤 혼도 들어갈 수 없는 평화와 축복의 나라로 그를 인도할 수 있게 한다. 이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거부하는 혼들은 영원히 밖에서 머물러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한 사람으로 보았고 또한 영의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같은 사람 그 이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빛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 이 땅으로 임했다. 이로써 자신의 추종자들이 이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대적자들은 절대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한 구속 역사를 완수하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의 대적자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얻지 않은 것을 소유할 수 없다.

인간은 어두움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인간이 자체가 빛이고 자신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지 않는 동안에는 어두움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그분의 도움으로 어두움의 나라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겨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빛의 나라로 가는 길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빛의 나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은 어떤 혼도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혼이 한때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떠났고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을 통해 스스로 입구를 닫았다. 혼은 이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들 자신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큰 죄짐을 자신이 짊어졌고 죄짐을 위해 속죄를 행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영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을 거부하고 그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 밖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된다. 비록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영원한 기간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할지라도 구세주가 없이는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이 없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죽은 분을 기억하고 그가 너희를 도와주기를 구하는 너희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구세주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그에게 순종하면, 그는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너희는 영원한 평안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와 고통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이 빛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너희 형편이

축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혼의 성장에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속하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한때 너희를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귀환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짐으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그러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너희에게 닫힌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죄짐에 대해 용서받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없거든 예수에 관한 설명을 구하라. 너희가 생명력이 있게 그를 믿을 수 있기 위해 이로써 스스로 너희의 죄짐을 가지고 그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기를 나 자신에게 구하라. 너희는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빛의 나라에 들어 가는 일이 보장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 후에 전적으로 서로 다른 빛의 정도에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는 너희의 혼의 성장 정도에 너희 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너희가 어떻게 내 뜻을 성취시켰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었는지에 달려 있다. 사랑의 정도만이 너희 혼의 성장을 정한다. 너희를 대신해 사랑을 행할 수 없다.

사랑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다. 너희가 원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 너희에게 정해진 바대로 내 형상이 되기 위해 이 법칙대로 너희는 살아야만 한다. 사랑이 된다는 것은 너희 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버리고 모든 저속한 욕망과 싸우고 너희 성품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들고 평화를 구하고 긍휼이 있게 공의롭게 인내심이 있게 만들고 모든 덕스럽지 못한 것을 버리고 항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깨닫는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허물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혼은 금강석처럼 선명하게 되고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축복을 의미하는 빛의 비추임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혼은 죽음을 죄를 부족함을 더 이상 알지 못할 것이다. 혼은 순수하고 순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가까이에 있기에 합당할 것이다.

혼은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그들의 구세주인 내가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한때 그들이 소원한대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한때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을 이 땅에서 이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전에 너희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구해야 한다.

왜냐면 죄짐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고 죄짐을 가지고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다면, 너희를 생명으로 생성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기를 그에게 구하라. 나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무지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진리를 그가 영접할 수 있게 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평화와 축복의 나라의 영접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너희가 자유의지로 떠나서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된 나를 깨닫는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는다.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나 자신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한다. 나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희를 다시 원래 초기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바꾸는 일이 너희의 뜻이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성장하게 너희를 돕는다.

아멘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B.D. No. 5844

1954년 1월 3일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나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하는 일은 너희에게 전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너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 나를 거부하는 일은 그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나에게 저항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는 일은 그가 전적으로 내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가 영원한 내 질서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일을 의미하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고 나를 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나를 추구하는 일은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삶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단지 “예” 또는 “아니오” 만을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단지 입술로 나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말한 것에 심장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회피하는 말로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방식이 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일을 알게 해주지 않고, 너희의 삶의 방식에 사랑이 없고, 너희 심장 안에 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 안의 믿음이 아직 아주 생명력이 없어 너희의 혼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긴밀하게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희의 길을 갈 때,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너희의 모든 말은 단지 너희의 진정한 혼의 상태에 대해 내가 속지 않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나 자신을 거부하는 일과 같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나와 함께 살고, 그는 계속해서 항상 또 다시 나와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와 긴밀한 대화를 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그에게 말하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내 자녀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영원히 되찾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고,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면 구속 사역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다가가려는 그의 의지가 단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단지 나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즉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나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사람이 비로소 나를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얼마나 진지하게 나를 추구하는 지, 어느 정도 추구하는 지 질문해보라. 너희가 아직 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고,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 삶의 방식이 나와 모든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고, 너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이 없이 아직 대적자의 결박 속에 있다면,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기독교 교파에 속하는 일이 너희를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그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의 부름이 들리면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고, 아버지께 달려가고, 최종적으로 내 대적자와 결별하고, 나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나에게 속해 머무는 사람들에게 속하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

B.D. No. 5847

1954년 1월 7일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예수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측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사람이 아직 영화되지 못한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육체의 고통보다 혼의 고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고, 예수는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자신이 스스로 악의 권세들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고, 그의 빛의 혼은 이런 어둠 앞에서 몸서리쳤고, 그의 혼이 그의 몸보다 더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알고 있지만 너희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너희 혼이 빛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공허의 역사가 너희에게 보일 때 너희는 비로소 그의 구속 역사의 크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되고, 영적인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인 인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된다. 너희는 그가 죄없이 고난을 당했고, 그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하고 사랑이 충분한 분이었고,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인해 힘과 권세가 충만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그분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의식적으로 그의 편에 서야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자신에게 부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너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의 사명을 믿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임했고, 하나님이 단지 인류가 죽음에서 구속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허락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속죄받지 않고 머물 수 없고 인간 자신이 결코 속죄할 수 없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

인간 예수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화목케 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일임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너희는 단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사랑이 너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로써 모든 기적과 예수의 지혜를 단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상이라는 것을 너희는 단지 믿어야 하고, 이제 직접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고, 너희가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구속 역사를 완성한 사람들의 무리에 또한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너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혼을 구속할 것이다. 왜냐면 혼이 대적자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구세주 예수가 자신을 영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혼이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할 것이고, 자신에게 자유를 준 분에게 자신을 드릴 것이고, 온 세상 앞에서 그의 이름을 고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존재를 믿으라.

B.D. No. 6485

1956년 2월 26일

예수의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부인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자주 의심한다. 이런 일도 또한 예수를 고백하거나 거부하려는 자유의지의 표현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면에서 그들에게 진리임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아직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는 바로 사람의 의지에 대한 시험이다.

예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인간의 심장 안에 두는 일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아주 효과적인 무기이다.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이미 줄어들었거나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확실하게 물리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의심을 물리칠 수 있다. 왜냐면 가장 이성적인 사람도 모든 정보들과 모든 가르침들과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를 허공에서 가져온 것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증거들이 부인하기 보다 옹호한다.

믿는 사람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예수가 인간에게 약속한 영을 부어주는 일이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할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왜냐면 영을 통해 깨우침 받는 일은 먼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아주 어두워서 그들은 어떤 연관 관계도 찾지 못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전혀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없다. 이런 사랑이 확실하게 심장이 밝게 해줬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깨어난 이성을 의지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은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 압수되었고 대적자는 진실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강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법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이성의 활동은 항상 단지 이 땅의 삶에만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를 이웃에게 전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일은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그의 추종자들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의 권세 아래 있고 그들은 이 땅에서 단지 사탄을 위해 일한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 지식을 얻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일을 보장한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은 인간이 불가능하게 생각할 정도로 치열하게 일어난다. 구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런 구원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문제를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의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고 그들의 깨어난 이성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그는 단지 믿음과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잘못 된 결론을 내리고 그는 뿔을 수 없는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된다. 왜냐면 그가 유일하게 빛으로 이어지는 길을 피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길이고 믿음과 사랑의 길이고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아멘

인간 예수의 사명을 믿는 믿음.

B.D. No. 7084

1958년 4월 5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과 인간 예수의 사명과 사명의 실행을 믿기 위해 학문적인 연구나 또는 이성으로 얻은 깨달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그의 사명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을 이성적으로 헤아려 볼 수 없고 또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인간 예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과정을 갔다. 그러나 예수의 태어남과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동안 그와 동행했던 특별하게 일어난 일들은 이제 단지 믿을 수밖에 없다. 반대자들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이런 나타난 일들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나에게 의해 계획이 일이다. 왜냐면 강제적으로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에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모든 각각의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선행조건 하에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이 선행조건을 항상 지원할 것이다. 왜냐면 이 일은 혼의 성장에 관한 일이고 내 대적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지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항상 큰 열심으로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강요하는 증거를 절대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을 갖는 일이 사람들에게 가능할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 가운데 영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런 영의 역사도 사람들에게 100%의 증거가 되어야 안 된다. 단지 스스로 영적인 추구를 하는 그들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 진실로 어떤 증거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럴지라도 전적인 내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믿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질문을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은 생각 가운데 잘못 된 길을 가고 통과할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항상 단지 인간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동의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고려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전과 같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

왜냐면 비록 그가 인간 예수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그가 판결을 받고 그의 십자가의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유의 증거를 찾을지라도 그가 인간 예수가 이 땅에 거한 영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가 나 자신이 사람 안에서 연결을 이루기 원했고 연결을 이뤘다는 것을 믿지 않는 동안에는 그에게 전혀 영적인 지식이 없는 동안에는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의 이 땅의 역사를 설명하려는 일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왜냐면 이런 사람에게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는지 또는 살지 않았는지 또는 그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전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나 자신의 곁형체로 섬긴 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일이 결정적이다. 이런 비밀은 이성으로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쉬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이해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 안의 영이 깨어나게 할 것이고 자신의 영이 그들에게 모든 것에 관한 다시 말해 특별히 구속사역에 관한 빛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한 분에 관해 모든 설명에 받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 자신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일이 너희가 한때 거부했던, 이로써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이 땅의 삶을 통해 너희의 한때 지은 죄를 속죄하는 사명을 성취했다. 인간 예수의 이런 사명을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로써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그는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 받지 못하고 머문다. 그러면 그는 이성으로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내 계명에 합당한 사랑의 삶이 요구되는 일인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는 인간 예수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해명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록 그가 아직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모든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생명력이 있게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가 그의 믿음을 떠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예수그리스


도 자신이 그를 돕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대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에게 향한 것이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아직 숨겨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밝게 깨닫는다.

아멘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

B.D. No. 7250

1959년 1월 8일

 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된 비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서 그에게 계시되어 계속되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한번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을 이해한 사람은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왜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가 혼의 성장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혼이 성장 과정에 불리하게 되는지 알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일은 아무런 영적인 연결이 없는 영적인 추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니고 믿을 만하지 않게 머물 것이다. 영을 추구하는 일은 혼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이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의 생각은 진리보다 오히려 오류에 빠져 있다. 그는 오류를 우선적으로 영접하고 이런 오류를 진리로 여길 것이고 순수한 진리는 그에게 영접할 수 없게 보일 것이다. 왜냐면 바로 그의 영이 아직 어둡기 때문이다. 영의 어둡다는 말을 이성이 어둡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부인 사람 안의 불씨가 어둡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순전히 영적인 원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은 영적인 원인에서 나온 효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은 일어났고 하나님 자신이 한 사람 안에서 자신이 태어나게 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다. 어떤 것도 사람들을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태어난 일도 인간의 법칙 아래 일어났지만 그러나 잉태 된 일은 아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존재를 자신의 뜻대로 생성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심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잉태되지 않고 태어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깨우침을 받은 영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창조된 영의 존재의 자유의지가 모든 창조물이 창조된 영적 근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런 자유의지가 한때 창조된 원래의 영이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역할에 의미가 있고 이 역할이 인간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단지 적은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갖도록 어떤 강요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유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정해야만 한다. 여기에 유일하게 사람들을 원래 창조 된 존재로 바꾸고 다시 영적으로 바꾸는 일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한다. 증명해주는 일은 결정하게 강요하는 일이다. 모든 창조 작품의 목적이요 목표인 한때 원래 존재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려면, 어떤 사람도 결정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래 초기의 상태와 목적을 알아야만 하고 창조의 의미와 목적과 창조 안에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지식을 절대로 책을 통해 얻을 수 없고 자체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에게 전달돼야만 한다. 그러나 전달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성취할 수 있지만 단지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성취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선행조건이 요구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단지 이런 선행조건이 갖추어 진 곳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조건은 단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요구하는 일이다. 진리가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일부분인 사람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일을 믿을 수 없거나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에 깨달음의 빛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들을 알려 주게 될 것이고 그는 선명하고 밝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은 놀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그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이성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어난 영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때와 현재와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예수의 삶은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생각한 삶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예수의 삶을 들을 것이다. 그의 영이 단지 깨어 있으면,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의 깨어남이 없이는 가장 날카로운 증거도 혼이 성숙해지는 일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증거로부터 나온 믿음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사람의 이성은 사람 안에 영이 깨어나는 일과 단지 적게 연관이 있다.

영이 깨어나는 일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삶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깊은 비밀을 연구하는 일은 이성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고 유일하게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특권이다. 이 계명을 성취하는 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예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효과이다.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사람들을 모든 지혜 안으로 인도하고 사람에게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해줄 수 없는 모든 영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너희 사람이 단지 입으로 고백하거나 또는 내가 인간 예수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간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 너희가 단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인간 예수가 존재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 너희가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단지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믿으면, 너희가 아주 자주 잘못 된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갔음을 믿는 일이 나에게 아직 내 신적인 사랑의 가장 큰 공훈의 역사에 대한 내적인 자세를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를 통해 내가 구속한 사람들에 속하기 원하는지 나에게 증거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위해 너희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먼저 언젠가 선명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가르침을 저항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왜냐면 올바른 믿음은 먼저 이런 가르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믿음은 믿음에 대한 진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사람에게 진리에 도달하려는 선한 의지가 부족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사랑이 그에게 없으면,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잘못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르게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올바른 믿음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생명으로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항상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을 기대할 수 있고 절대로 사람이 믿어야 할 진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없는 사람이 단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 받은 대로 내 이 땅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가르침에 대한 내적인 입장이 없으면, 그는 절대로 "그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내 약속을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그에게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려는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의 무리에 자신이 속한다고 스스로 믿는 아주 많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복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모든 진정함으로 선명한 결정을 요구한다. 나는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를 따르게 요구하고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를 요구한다.

그들이 이렇게 살면, 그들은 이런 사람과 그의 실제적인 사명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비로소 지금까지 단지 그들의 이성이나 심장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던 가르침에 대해 생각을 통해 스스로 입장을 정한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비로소 그에게 교육을 통해 전해진 가르침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들의 믿음은 믿음 안에 능력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그의 구속사역의 큰 문제에 항상 깊이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기 위해 내가 얻기 원하는 대로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써 나에 대한 자세가 비로소 내 약속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진지하게 질문하면,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인정하고 딱 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정도로 거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인간 예수의 사명에 대한 그리고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구속을 위한 목적으로 거한 내 성품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에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 생각과 너희 의지가 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고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구속역사.

B.D. No. 3787

1946년 6월 1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 질 위험은 아주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왜냐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영원을 위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인류를 위해 영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해 인간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문을 스스로 닫고, 나의 구속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구속역사를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문은 영원히 그들에게 닫혀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또한 그를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구속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대적자의 권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나를 떠나고,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모든 깨달음을 빼앗아 간 자를 추구한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고, 종말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다가왔다. 내가 다시 구세주로서 인류에게 다가가, 인류에게 영적인 자유와 빛과 지식을 주기 원한다. 내가 나의 구속역사의 은혜를 혼에게 부여할 수 있기 위해, 나는 단지 인정을 받기 원한다. 이로써 혼이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지로 자신을 구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힘과 은혜를 통해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게 하는 나를 세상 앞에서 고백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으로 계셨고, 인간 예수의 이웃 사람을 향한 큰 사랑이, 그를 믿지 않고,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가 얻은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게 주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이웃 사람들이 피하게 해주기 위해,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했음을 믿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며 사람인 예수의 사랑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거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증거하는 일이 전적으로 모두 나를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 앞에 그들이 진정으로 나의 자녀임을 보여준다. 나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자녀는 또한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하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힘든 때가 될 것이고, 이 때에 그들은 나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내가 약속한대로 그에게 힘이 측량할 수 없게 주어진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나의 사람들은 나를 추구하고, 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영으로 진리로 나를 부르고, 사랑 안에서 살고,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가오는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싸움이 사람들에게 임해야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입장

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람은 나를 위할지, 나를 거부할지 결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드렸다. 왜냐면 내가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죄와 그 결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그를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B.D. No. 6098

1954년 11월 4일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를 완성으로 인도하는 선생이요 조연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 의지가 나를 영접하고 지도자요 선생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르침은 효과가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한 걸음도 성장해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적으로 모든 심장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대하면, 너희는 동시에 올바른 길을 가르침 받은 것이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구하고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즉시로 나를 거부하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고 모든 것을 채우는 영원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이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고 그들에게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면, 너희는 항상 이런 의미에서 가르침 받을 것이다. 나에 관한 설명과 너희의 과제에 관한 설명과 영원한 신성에 관한 모든 다른 설명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설명들을 더 많이 믿고 그러므로 인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인류는 골고다를 향한 길을 가지 않는다. 인류는 인간 예수로써 내가 열어준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랑이 육신을 입은 것으로 깨닫고 인정했을 것이다.

창조하는 한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하는 한 권세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창조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권세를 상상해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창조하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만 하고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는 것이 진리이고 정해진 일로 믿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람이 나를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그에게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깨어날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임을 증명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빛과 확신의 능력을 그에게 주는 사랑이 자신 안에서 불타오

르게 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빛과 확신의 능력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나를 지도자로 제공하여 너희가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게 하고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비밀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올바른 가르침이 너희에게 빛을 주고 너희는 또한 이 가르침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단지 나 자신이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는다는 조건과 너희가 너희 안에서 인정하는 영원한 신성에게 설명해 주기를 구하고 올바른 생각하도록 해주기를 구하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기를 구한다는 조건 아래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나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너희가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한다.

아멘

예수 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B.D. No. 8541

1963년 6월 26일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으면 단지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는 것만이 너희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다.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너희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위험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에게 도망치는 것만이 필요하다. 항상 다시 나는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또는 기도를 통해 단지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진실로 너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와 연결이 너희에게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데 너희가 한때 생성되어 나왔던 분에게 다시 돌아 가는데 내 도움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해 줄 수는 없다. 너희는 그를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믿으려고 하면, 너희를 주변의 모든 것이 스스로 너희에게 나를 증거하는 증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생각을 통해 이미 나를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단지 너희가 생각이 없이 살기를 단지 세상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 자체가 목적이라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마치 전파처럼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한다. 왜,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사는가? 왜냐면 너희가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너희를 그와 연결이 되길 원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영원히 더 이상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을 버리기 위해 높은 곳을 향한 성장을 보장받기 위해 그를 찾아야만 한다. 너희는 진지하게 나를 추구하려는 의지의 힘을 적게 소유할 것이다. 왜냐면 한때 나를 떠난 죄로 인해 너희는 이렇게 하기에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지가 강화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강화된 의지의 은혜를 구매하기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원죄의 결과로서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를 돕기 위해 나 자신이 너희에게 임했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 해주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구하면, 너희가 예수의

발 아래 너희의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모든 영원까지 하나가 된 아버지에게 돌아 가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를 표명하면, 너희가 나에게 이제 귀환하는 것을 가능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으면 너희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러나 나를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인간의 겉형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나 자신이 겉형체로 선택한 인간의 형체 예수는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 사람들은 내 의지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그러나 너희는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 갔다. 나와 연결은 단지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이 연결을 너희는 자유의지로 버렸다. 반면에 사랑인 내 원래 성분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비추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자신도 자신의 성분에 의하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단지 그의 겉형체만이 그가 영화시킬 때까지 자신의 신적인 혼에 속하게 될 때까지 예수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였을 때 어떤 인간적인 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의 나를 깨달은 자는 어두움을 떠난 것이다. 왜냐면 빛 자신이 그를 이제 높은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빛이다. 나는 인간 예수가 전적으로 모두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통해 빛을 이 땅에 비추인다.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빛의 비추임을 전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심장을 열어주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너희를 창조하신 분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너희는 자유롭게 너희로부터 우러나오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긍휼의 사랑으로 붙잡힘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일이 행해질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깨닫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B.D. No. 5925

1954년 4월 9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너희가 심장으로 이 말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아버지와 깊이 연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 말하게 하고 내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게 하고 아버지의 가장 거룩한 뜻을 행하는 인간 예수로 살면서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거하는 아버지가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도 나 자신을 볼 수 없었다. 왜냐면 나는 나로부터,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전 우주를 자기 안에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내 무한

함을 이해하고 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빛과 능력의 충만함을 이해하기 위해 나보다 더 커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이들은 내가 창조한 즉 나 자신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빛의 불씨로써 영원한 빛이고 모든 힘의 근원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제한이 있는 존재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빛이면서 모든 힘의 근원이 한 형체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기를 갈망하는 존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나타남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인간 예수 안에서 나타남이 일어났다.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내 영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이로써 내가 인간이 되었고 예수는 하나님이 되었다. 왜냐면 외적인 형체가 단지 인간이고 이 형체를 채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올바르게 이해하라. 만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떤 것을 구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부르면, 너희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고백하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너희에게는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고 너희는 이제 전적인 믿음 가운데 너희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내 안의 아버지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너희가 헛되이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 예수로서 내가 도달해야 할 내 목표를 알고 있었고 내 사명을 알았다. 내 사명의 최고봉은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한 사랑 자신이 내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알았고 나는 내 몸과 내 혼이 영원한 사랑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원한 사랑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너희에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기도를 통해 너희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B.D. No. 7066

1958년 3월 14일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공훈의 역사를 믿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 나 자신이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나는 그를 통해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세상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어 나 자신에게 합당한 겉형체가 되어 나를 전적으로

모두 자신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용서하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 예수는 영원한 너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때 너희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아직 부족한 축복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 이름 안에 모여야 하고 나 자신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한 그러므로 너희를 생성되게 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한때 너희를 위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비로소 갈 수 있게 해준 구세주를 인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이 길을 통해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너희 혼이 이제 비로소 전에 가졌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에 도움을 줘야만 하고 도움이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필요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헤아려 보거나 또는 증명하기 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주변을 관찰하고 창조물에 대해 창조물의 생성에 대해 생각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이름을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구속사역의 의미를 먼저 체험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빛의 나라의 문이 열려진 시대가 되었고 전적으로 구속을 받은 혼들이 첫 번째로 아버지께 돌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많은 혼들이 축복의 문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많은 혼들이 이제 비로소 축복된 영의 존재로써 그들이 원래 초기에 생성되어 나온 곳에 거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원죄를 해결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나라의 문이다. 그의 이름이 빛의 영역의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진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 있고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로써 나를 부르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그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 자신에게 너희 안전을 아뢰면, 너희는 잘못 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짓누르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사랑이 다

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성취시켜줄 것이다. 나는 항상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비로소 자유의지로 너희를 온전한 존재로 바꾸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너희는 비로소 "피조물"에서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자유의지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비로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들어선다. 왜냐면 이 길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인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제자.

B.D. No. 5577

1953년 1월 14일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예수는 너희와 다르지 않았고, 그의 삶은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욕망에 맞서 싸우고 투쟁하는 삶이었고, 그는 이런 욕망을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억누르기를 원했다. 그의 삶은 그가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돕기를 원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고, 너희에게 나 자신을 모든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진지하다면, 너희 사람들도 그가 성취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의 혼은 실제 빛의 나라에서 왔다. 그러나 그가 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 그 안의 내 영이 때때로 그에게 말했고, 그러면 예수는 초자연적으로 지혜롭게 말했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내 영이 다시 숨으면, 예수는 자신을 너희와 같은 인간으로 느꼈고, 때때로 일어나는 더 밝은 그의 영의 상태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두렵게 했다. 그는 닫혀 있었지만 그러나 더욱 긴밀한 사랑으로 나에게 향했고, 이런 일이 그에게 그의 이 땅의 과제를 향한 빛을 주었다.

예수는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싸워야만 했고, 단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체험해야만 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왜냐면 그가 너희를 앞서 너희가 또한 가야 하고, 그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의 사랑의 삶으로 벌어드린 도움을 내가 내 사랑의 힘으로 그 자신에게 주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의 힘의 공급이 그가 구속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했다.

너희 자신이 사랑을 행함으로 내 사랑의 힘을 얻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도 또한 특별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인간 예수 안에서 아주 강하게 성장한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나 다시 그런 강한 의지는 단지 그가 자신 안에서 확장시킨 사랑의 결과이다. 그의 혼은 빛의 혼으로서 자신 주변의 큰 영적 위험을 느꼈고, 그러므로 그의 도우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고, 인간 예수가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했다. 너희 사람들도 또한 너희 주변의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을 보고, 너희가 돕기 원하면, 너희에게 힘이 제공될 것이다. 왜냐면 의지가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모든 일이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줄 수 있게 하고 이로써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성취될 수 없는 일이면, 너희에게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고, 그의 모든 신적인 성품들은 인간으로서 그가 얻은 것이고, 신성이 그에게 그의 길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성에게 순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의 사랑이 내가 제한이 없게 사랑을 표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라. 왜냐면 내가 사랑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고, 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사랑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나 자신을 강요했고, 나 자신이 해야만 하고, 내 원래의 성품이 요구하는 일인 사랑이 힘이 역사하게 하는 일을 그가 행했다.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을 나타내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강요는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느낌을 준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영원한 법에 따라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존재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사랑은 존재를 나와 연결시켜야만 한다. 그러면 존재가 내 영과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간 것이고, 이런 길이 나와 연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B.D. No. 6333

1955년 8월 15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속 역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를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의 구속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여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세주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사람들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를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온 세상에 설교되고 그의 이름이 유일한 생명의 빛줄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제시될지라도 예수가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깨어난 영을 가진 예수가 죄와 죽음의 구원자가 된 이 땅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속 사역의 의미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큰 위험을 깨닫고 인류가 유일하게 그들에게 축복된 삶을 줄 수 있는 분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설교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는 예수 자신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혀 더 이상 그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소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열광하는 만큼 빨리 잊는다. 이런 일은 지푸라기가 밝게 타오르다가 매우 빠르게 사라지는 일과 같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이 있게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입구를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 있게 한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은 영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상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구세주가 예외가 없이 모두를 자신의 십자가 아래로 유인할지라도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혼을 위해 일하라고 권면할 것이다.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그가 그들의 심장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그의 사랑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 땅에 어떤 위험이 지배하는지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각 개인에게 예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음은 저세상의 끔찍한 운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를 통해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혼은 영원히 어둠과 축복되지 못한 가운데 살아야만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적은 의미가 있다. 왜냐면 인류가 그의 은혜의 역사를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류가 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그를 깨달을 수 없다. 왜냐면 인류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인류가 그를 깨닫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차가워졌다. 그러므로 끊임 없이 사랑을 설교해야만 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을 언급해야만 한다. 사람이 사랑의 계명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의 내면은 빛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예수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십자가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을 것이고 유일하게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B.D. No. 8019

1961년 10월 15일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의 길은 너희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는 성장 과정에 마지막 짧은 단계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르게 활용해야만 하는 자유의지를 되돌려 받고 인간으로써 너희 자신이 이 과정을 종료시킬지를 정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또는 영원한 기간에 대한 너희의 운명을 다시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의지를 가지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날 때 모든 형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이 땅에 삶을 활용하지 않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너희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너희는 새롭게 가장 굳은 형태를 입을 수 있다.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너희는 이런 변화시키는 역사를 완성시킬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모든 지원을 하고 내가 내 피조물이 내 자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이 한때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고도 깊은 곳으로 빠진 것처럼 그들 자신이 자유의지 가운데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 혼자서는 너무 연약한 곳에 내가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감당하고 돕고 나를 너희에게 계시를 해주어 너희가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내가 너희가 단지 이 땅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제한이 없는 분량의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로부터 떠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너희의 의지를 정할 수 없는 내 대적자와 싸움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혼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충동과 정욕과 싸워야만 하고 너희가 성장하려는 이 땅의 삶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요청을 해야만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를 영원히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완성을 이루는데 능력이 부족하게 될까 봐 염려할 필요 없

다. 왜냐면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상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능력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그의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구하고 그가 너희의 죄짐을 용서해주기 원하고 너희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는 나를 다시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나갔던 너희의 나에게 귀환이 아버지의 집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보장 된다.

너희가 단지 나 자신을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너희는 진실로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원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자신의 피로 공의를 위해 큰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일을 통해 타락한 너희의 원죄를 내가 용서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속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이런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형제를 위해 이런 사랑을 드렸고 그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사랑이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게 했다.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인정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즉 그 안의 나를 인정하면, 너희의 죄가 예수를 통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를 부르는 자는 나를 부르는 것이다. 언젠가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보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